

韓國哲學의 正體와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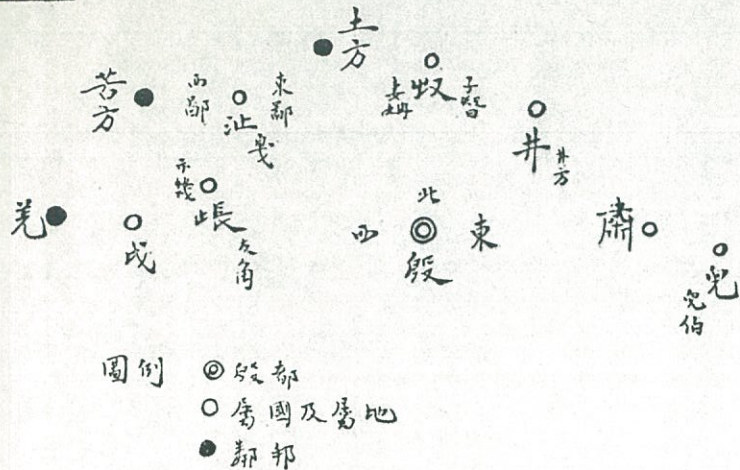
2000. 3. 16 (木)

崇實大 學校 哲學科

序言

1. 韓民族의 起源
2. 韓國人의 價値觀
3. 韓國人의 思考類型
4. 韓民族의 21世紀의 課題
5. 韓國思想의 未來의 展望

結語



除了以上所列，還有不能推知地方的各國，而時代皆在武丁之世的，有

鬼方 (108) 乙酉卜，鬼方田。五月。 4.2.0010

見乘 (194) 丙戌卜，見乘：今春王从見乘伐下召，受出又。 續249.2

下召 見上辭。

蒙 (195) 貞：今秋從蒙侯虎伐蒙方，受出又。 前4.44.6

蒙方 見上辭。

中方 (196) 貞：今春伐中方。 前7.15.4

鬼方僅於吾人第四次發掘時一見，是否苦方的異名，尚待考證。其餘各國皆在何地，也待將來考證。以上為可以推知是武丁時代之方國，不可知者，暫從闕。

乙， 帝辛時的“正人方”

殷代末葉有一件重要的戰史，被史家湮沒遺闕了，這件戰史就是征人方。我們既已認定了殷虛遺物的涵攝乃至帝辛之世，又殷虛之成因為堆積廢毀而非湮沒（均詳坑位節），於是才發見帝辛時的征人方卜辭，及與征人方相關各種遺物。在第四次發掘E區的一個坑裏有記着“征人方”的卜辭，來自海濱的鯨魚胛骨，刻着祀“文武丁”的鹿頭，和一個大象的下顎，這些有意義的堆積的各種遺物，使我們不能不承認它們有相互的密切的關係（參看附圖六）。

這里就征人方的各種傳說，記載，卜辭，有關係的出土物，一一論述于次。

子， “紂克東夷”的傳說

春秋時代，有一種比較普遍的傳說，就是殷朝末年的東夷之叛和“紂克東夷”。
春秋昭四年左氏傳：

夏桀有仍之會，有緄叛之；商紂為黎之蒐，東夷叛之。

昭十一年傳：

桀克有緄以喪其國；紂克東夷而殞其身。

以上，東夷背叛，紂克東夷的兩個傳說，一個是椒舉誅楚子的話，一個是叔向對韓宣子的話，而所舉都是紂與東夷的交涉，又同時用夏桀作陪，這故事是殷末的一件重大戰史，所以北至韓，南至楚，傳播得如此之遠。呂氏春秋古樂篇也載有商人與東夷的故事：



商人服象，為虐于東夷，周公以師逐之，至于江南。

商人為虐東夷所服之象，有勞周公以師逐之，可見這殷人與東夷的戰爭在殷之末季。這些故事的素地，都包涵着一種重要的史實，不過因為紂是亡國之君，所以就變成了“箭垛式”的罪人，“天下之惡皆歸焉”，所以各種傳說也隱隱中對他不表好意。可是我們不管他“叛之”也好，“殞其身”也好，“為虐”也好，我們可以由此得知殷代末年的這些事蹟：

東夷曾在帝辛之世，背叛了殷人。帝辛曾征伐東夷，並且攻克了他。征東夷時曾服象。

春秋宣十二:left氏傳，稱“紂之百克而卒無後”。宣十五年傳，稱“恃才與衆，亡之道也，商紂由之，故滅”。這些都形容紂的暴虐，其實我們從所謂暴虐之中倒看出一些帝辛時代的武功之盛，“征人方”不過一種而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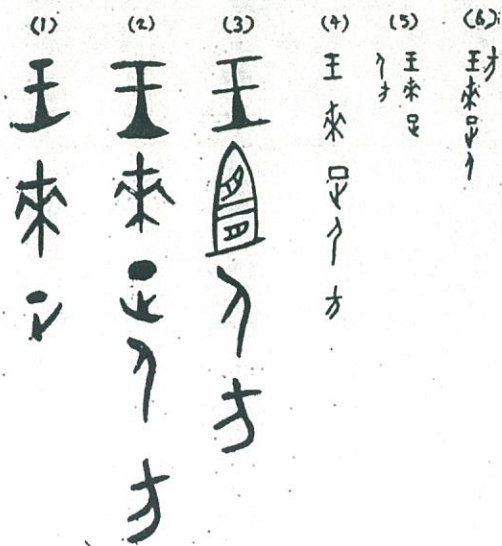
丑， 銅器中“征人方”的記載

人方即是夷方，即是東夷。說文解字“夷，東方之人也，从大，从弓”。段玉裁注云“大象人形，而夷篆从大，與夏不殊，夏者中國之人也。从弓者，肅慎氏貢楛矢石磐之類也”。古文夷作, 从尸，尸亦人字。周禮注“夷之言尸也者，謂夷即尸之假借也”。金文中東夷，淮夷，夷皆作。孫詒讓古籀餘論有論史懋齋云：

王且尸方顯云“王方”，當為且，即祖之借字，當為尸，讀為夷。

戊戌王葛田缺文武丁，祈，缺王來征下缺

這刻辭的時期，有文武丁之祀，可以知道至早到帝乙之世，帝辛是更可能的。更從字形，書體來看，和卜辭中征人方正同，可見是同時之物，而未行正字下所缺的也當然可以是“人方”了。現在把金文，卜辭，鹿頭刻辭中“王來征人方”字比較如下：



註：(1)鹿頭刻辭

(2)丁巳簋

(3)投作父己尊

(4)骨版上的卜辭前 2.13.3

(5)龜版上的卜辭前 2.16.6

(6)與鹿頭刻辭同坑之骨版卜辭

4.2.0225

鹿頭刻辭的出土情形（見圖六），是在一個鯨魚的肩胛骨的旁邊，中間又有巨象的下顎骨，而卜用的牛胛骨料也堆積在鯨魚骨的上面。看了這一幅鹿頭出土的寫真，可以知道他們相互間的關係，同時就可以這樣的解釋它們。這鯨魚的肩胛骨，無疑義的是得自海濱，不啻征人方所獲珍異的戰利品。這象的下顎骨，也許就是“服”以“為虐於東夷”的功象，因為它是服戰役而犧牲者，所以留作紀念。這並不算是附會，它們既然同在一坑，彼此就不能說是毫無關係了。

卯，“征人方”卜辭的排比

這可以說是帝辛時“征人方”破殘的史乘之一頁。由許多卜句之辭，可以推知征人方的時間，前後在一年以上，以三塊有月份的卜辭為主幹，又以句為單位，不使重複，依六句之次而排比起來，其餘的可以聯貫的卜句之辭也穿插其間，成為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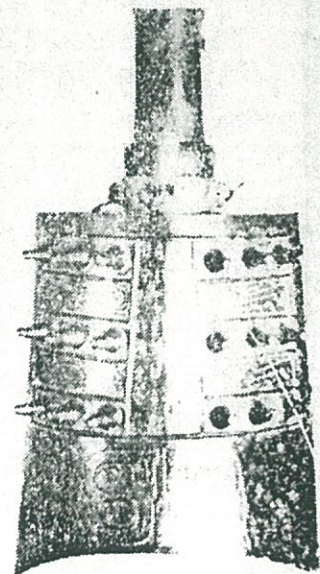


韻東(夷)大反伯懋父
 以殷八(德)自征東人(夷)唯
 十又一月遣自兗自述(遂)
 東隣伐海眉(厥)季復
 歸才(在)牧自伯懋父承
 王命(命)易自達征自五
 錫(賜)貝小臣(臣)謎(臣)蔑(臣)曆(臣)崇
 易(賜)貝(臣)用(臣)乍(臣)寶(臣)障(臣)彝

小臣謎殷 銘文拓本 中華民國(中央研究院 所藏)

同銘二器，銘은 第二器，器는 第一器. 周初에 伯懋父(周의 將帥)를 시켜 東夷를 征伐할 때 沿海까지 遠征을 하고 돌아와 軍人들에게 論功行賞한 紀念器이다.

[銘文 1]



來從邵王南
 人東(夷)人具見廿
 又六邦佳皇上帝
 百神保余小子朕
 猷有成亡競我佳
 司配皇天王對作
 宗周寶鍾倉恩雉
 醜用昭格丕顯祖

宗周鍾 銘文拓本(中華民國 故宮博物院 所藏)

周昭王(B.C. 10世紀頃)即位하여 南征할 때 南夷·東夷가 來服하고 二十六邦이 朝服하였다. 昭王의 威靈을 皇上帝神에 配하여 만드는 宗周의 寶鍾이다.

[銘文 2]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文王과 武王이 혁명에 의하여 국가를 건설하고, 그 후 계속하여 北戎과 東夷를 정벌함으로써 그 세력을 확장하여 왕권을 확립하고, 官制와 社會制度를 정비하여 封建國家體制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殷의 神政國家의 질서로부터 周의 封建國家의 體制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殷의 禮는 宗教儀式으로서의 禮이고, 周代의 禮는 倫理的 規範과 政治的 制度로서의 禮라고 하겠다.

그러나 西周의 禮制는 殷代의 종교적 요소를 계승하여 상제와 인간을 매개시키는 天命思想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西周時代의 金文에서 天和 人을 매개시키는 개념으로서의 ‘德’字가 비로소 발견된다.⁴⁾ 인간의 존엄성의 인식과 더불어 周代 이후로는 殉葬風習이 없어지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子曰 天生德於予”(論語; 述而)라 하여 공자는 이 덕을 천명과 관련하여 계승하였다. 殷 시대의 上帝觀念과 西周 시대의 禮思想이 종합적으로 內在化하여 공자의 사상이 확립되는 것이라 하겠고, 이러한 양면이 공자의 天人思想으로서 융화하여 實踐倫理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孔子는, “文質彬彬然後君子”(論語; 雍也)라 하여 內와 外의 文質이 彬彬한 다음에라야 君子라고 하였다.

공자의 사상은 ‘仁’字로 대표할 수 있다. 仁은 全人的인 성격을 나타낸다. 「論語」에 보면, 孔子는 ‘仁’字와 ‘人’字를 통용하였다. “殷有三仁焉”이라 할 때 그 三仁은 三人의 뜻으로 쓴 것이다. 「中庸」과 「孟子」에서도 仁과 人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였다.

仁者 人也(中庸; 第20章)

仁也者 人也(孟子; 盡心 下)

4) 公告季事于上 作民之德才 蘇悉天命 故亡尤才 顯佳敷德 亡適違(班殷). 班殷은 周成王(B.C. 1104~1067) 때의 그릇으로 銘文 중에 ‘德’字가 처음 나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仁이 있음으로써이다. 說文에 의하면, “夷 東方之人也 从大 从巾”이라 하여 夷는 東方之人이라고 하였고, 古文에는 夷를 尸라 하여 尸와 巾을 통용하였다. 여기서 尸는 ‘人’字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周禮 卷에는 夷를 尸로 쓴 것은 夷가 尸의 假借인 때문이라고 하였다(夷之言尸也者 謂夷即尸之假借也).

西周 金文에서는 東夷 및 淮夷의 夷를 다 人(人)으로 썼다(銘文 1·2참조). 甲骨文에서는 東夷族을 ‘人方’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人·尸·夷·仁은 모두 통용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인 발전에서 고찰하면 人에서 由來한 글자들이다. 중국 학자 勞榦은 다음과 같이 논술했다.

我們常常把東方的人稱爲東夷 而夷字和仁字是通用的 仁字和人字也是出於一源 那麼漢語中 ‘人’的 稱謂 甚至於還有出於東方的可能……假若夷人先成文化的先進 夷人先用了 ‘人’字 作爲全人類的名類 西方後起的部族 可能再爲借用的(中國文化論集(2), 中韓關係論略)

즉 東夷族인 ‘人’ 또는 ‘尸’으로부터 漢語의 ‘人’字로 일반화되었고 ‘仁’字가 人方의 人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다(圖 1, 銘文 1·2참조).

여기서 人이 고대 동이족의 호칭이라 한다면 보통명사로서의 사람을 어떻게 표기하였는지 의문될 것이다. 甲骨文에 보면, 대개가 사람을 표시하여 ‘人’ 또는 ‘尸’로 그려 사람이 부를을 꿇고 앉은 모습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命’字를 甲骨文에서는 ‘命’으로 썼다. 후기에 이것이 변천하여 許慎의 說文에는 ‘人’로 하였고, 「隸書」에는 ‘人’로 하였다. 이것은 모두 ‘人’(甲骨文)에서 유래하여 변형된 모습이라고 羅振玉은 말하였다. 그러므로 人方의 ‘人’字와 구별하여 일반적으로 사람이라 할 때에 形象을 그려서 썼음을 알겠다. 따라서 ‘仁’字는 人方의 ‘人’字에서 유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中國古代的 동이족의 위치가 중국 유학사상 형성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人方族의 ‘人’에 君子之國의 君子가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